

탐방시나리오

제목 : 문장대 경관해설

국립공원관리공단 속리산사무소

1.해설 프로그램 진행

안녕하세요! 저는 속리산 국립공원 문장대에서 자연경관 해설하는 에코가이드 000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오셨나요? 여러분이 오신 이곳이 속리산국립공원 문장대라는 것은 다 아시죠? 그럼 국립공원은 어떤 곳인 줄 아시는 분 있으세요?

2. 국립공원은 어떤 곳인가?

국립공원이란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가 지정한 공원을 뜻합니다. 즉 우리나라를 대표할 만한 자연생태계와 자연, 문화 경관지를 선정하여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였으며, 현 세대는 물론 다음 세대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존하고 관리하는 곳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국립공원은 몇 개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국립공원은 모두 20개가 있습니다. 그중 1호는 지리산으로 1967년에 지정 되었으며 속리산은 1970년에 6호로 지정되었습니다.

6호로 지정되었다고 여섯 번째로 아름답다는 것은 아닙니다.

3. 속리산 국립공원 소개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은 무슨 산입니까? “속세를 떠난다”는 뜻으로 불리우는 속리산은 한반도의 중심부를 지나는 소백산맥 줄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보시는 것처럼 우뚝 솟은 봉우리와 수려한 계곡들은 낙동강, 금강, 한강의 발원지가 되고 있으며, 울창한 숲과 기암괴석이 맑은 계곡과 어우러져 절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속리산은 충북보은군, 괴산군, 경북 상주시, 문경시에 걸쳐 총 면적이 274.5km²에 달하며 구병산, 백악산, 도명산등의 산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이제 속리산의 주요 문화자원과 자연자원을 알아보겠습니다. 문화자원으로 법주사와 8개암자(여적암, 상고암, 복천암, 수정암, 탈골암, 상환암, 중사자암, 관음암)등의 암자가 있으며, 자연자원으로 속리산의 주요 봉우리로 제일 높은 곳인 천황봉(1057m)과 문장대(1054m)등 9봉9대가 있고, 주요 폭포로는 은폭동, 오송폭포, 등이 있습니다. 식물의 경우 국립공원 인근의 저지대(600m)에는 소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있으며 600m이상에는 서어나무, 신갈나무, 굴참나무, 느티나무, 고로쇠나무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정이품송, 정부인소나무, 망개나무, 황금소나무등을 비롯하여 약 1,055종류가 분포하고 있습니다. 동물의 경우 포유류 20종, 조류 87종, 양서류 10종, 파충류 14종, 담수어류 34종, 곤충류 1,335종 등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4. 속리산 유래

여러분이 찾아온 이곳은 속리산이며 먼저 속리산의 유래를 들어 보는 것으로 오늘의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속리산이 구봉산(九峯山)으로 불리고 있던 신라 혜공왕 12년(776년)11월에 고승 진표율사가 완산에서 불상을 봉행하여 보은 법주사로 향하던 중 회인근처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수레를 끌고 오던 황소가 진표율사 앞에 이르러서는 앞발을 꿇으며 머리를 숙이는 것을 본 사람들이 놀라 살펴보니 소의 눈은 감격의 빛을 띠고 있었고 눈물까지 머금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수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내려 진표율사 앞에 무릎을 꿇고 그가 봉행하는 불상을 향해 예를 올렸다 하며, 또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축생에 지나지 않는 소도 부처님을 알고 도승대사를 알아보고 존경의 뜻을 표하는데 하물며 사람이 그 것을 깨닫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하며 갖고 있던 낫으로 머리를 자르고 진표율사에게 같이 입산수도허가를 탄원했으며, 이에 진표율사가 그 뜻을 받아들이고 구봉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후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머리를 깎고 구봉산으로 들어왔는데 이로부터 사람들이 속세를 떠나 들어온 산이라고 해서 이름을 속리산(俗離山)으로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진표율사의 행적을 담은 이 이야기는 법주사의 청건 내력에도 전해지며, 그 내용이 법주사 경내에 있는 추래암 부근의 마애여래 의상 옆 암벽에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6. 속리산을 이루는 화강암과 변성퇴적암관찰

이제 주위에 있는 산봉우리를 보세요. 어떨습니까? 여러분이 자리하고 있는 곳과 같은 암석입니다. 표면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어떤 암석에 해당 할까요? 지구표면을 이루는 암석은 만들어지는 원인에 따라 크게 세 종류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암석성분과 가스의 혼합체인 마그마로부터 만들어 지는 화강암, 돌 부스러기와 침전물·생물의 유해 등이 쌓여서 형성된 퇴적암, 기존의 암석이 높은 열과 압력이나 다른 지질작용의 영향으로 그 성질이 변화된 변성암이 있습니다.

속리산은 기암들이 돌출하여 능선을 이룸으로써 거대한 산군을 형성하고 있는데, 지질상으로 보면 화강암을 기반으로 변성퇴적암이 군데군데 섞여 있는 상태에서 풍화가 약한 변성퇴적암 부분이 깊게 패이고 풍화에 강한 화강암 부분은 날카롭게 솟아 있는 것입니다.

7. 주요 자연경관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속리산의 주요 자연경관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

듯이 문장대, 천황봉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무엇이 있는지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대를 포함한 구대(문장대, 청법대, 신선대, 경업대, 입석대, 산호대, 배석대, 학소대, 봉황대) 천황봉을 포함한 구봉(천황봉, 비로봉, 관음봉, 태봉, 수정봉, 길상봉, 묘봉, 문수봉, 보현봉) 및 폭포(은폭동폭포, 오송폭포, 장각폭포)등이 존재합니다. 구대, 구봉을 보시면서 의문점은 없으셨나요? 속리산의 지명들은 무엇보다 불교에서 따온 것이 많습니다. 문수봉은 문수보살, 비로봉은 비로자나불, 관음봉은 관음보살, 보현봉은 보현보살 등이 그러합니다. 전설에서 따온 이름도 많이 있습니다. 세조가 글을 읽었다는 문장대, 임경업장군이 무예를 닦았다는 경업대 선덕여왕을 따라 절을 하다 굳어졌다는 배석대 등이 있습니다.

8. 좀더 구체적인 경관자원의 유래 및 설명

<구대>

○ 속리산의 중심 문장대

여러분 지금 이 자리의 지명이 무엇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곳은 해발 1,054m에 위치한 문장대 정상입니다. 또한 경상북도 땅에 서 계신 것입니다. 제가 문제 하나를 내겠습니다. 속리산의 가장 높은 봉우리는 어디일까요? 문장대라 알고계시면 틀린 것입니다. 속리산의 제일봉은 천황봉으로 문장대보다 3.7m가 높은 1057.7m에 해당합니다. 탐방객 여러분은 어느 방향으로 문장대를 올라오셨습니까? 문장대 등산로는 크게 법주사-세심정-문장대(7km), 화북(시어동)-문장대(3.3km) 코스가 있으며 가장 빠른 시간에 문장대를 오르려면 화북(시어동) 방향으로 등산로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등산로에 비해 1시간 정도 시간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위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으로 천황봉부터 비로봉, 신선대, 문수봉(경관해설판 참조)이 북서쪽으로는 관음봉과 묘봉(해설판)이 어깨동무를 하듯 이어져 있습니다. 북동쪽으로는 밤티재를 건너 백악산~청화산~대야산~장성봉~희양산~구왕봉을 지나 월악산으로 이어지는 백두대간이 보이고, 북쪽으로 도명산, 낙영산, 칠보산, 군자산의 봉우리들이 겹겹이 이어집니다. 서남쪽으로는 법주사 금동미륵대불이 위치하고 천황봉 그 너머로 구병산이 보입니다. 북서쪽으로 건너다 보이는 봉우리들이 서북능선상의 봉우리들이며, 화북(시어동) 방향으로 내려가다 마을입구에 이르기전 좌측으로 후백제의 견훤이 세운 견훤산성이 한참 복원공사 중에 있습니다.

<운장대(雲藏臺)가 문장대(文藏臺)로 변한 사연을 아십니까?>

문장대의 본래 이름이 운장대라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조선시대의 군주 세

조가 괴질에 고생하다 속리산에 요양을 할 때였습니다. 하루는 꿈속에 월광태자(月光太子)가 나타나 동쪽으로 사오리 떨어진 곳에 영봉이 있으니 그곳에 올라 기도를 올리면 신상에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는 사라졌다고 합니다. 세조가 꿈에서 깨어나 신하들을 데리고 봉우리를 찾아 나서니 하늘 위에 오른 것처럼 사방이 구름과 안개사이로 가려진 가운데 영롱한 봉우리가 보였습니다. 정상에 바위가 우뚝하여 아무도 오를 수가 없어, 철뿔을 박고 밧줄을 늘이고서야 정상에 올라갈 수 있었는데, 놀랍게도 정상에는 삼강(三綱)과 오륜(五倫)을 명시한 책이 놓여 있었으며, 이에 세조가 크게 감동하여 하루 종일 신하들과 그 자리에서 강론을 하였다 하였고 그 뒤부터 봉우리를 문장대라 부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 청법대(칠형제봉)

앞쪽(남쪽방향)에 위치한 바위 능선이 청법대입니다. 속리산 많은 암석중 최고로 꼽히는 암석으로 부처님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모여있는 바위들은 모두가 고개를 수그리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으며 그중에 일곱 개의 봉우리(칠형제봉)가 있는데 각기 개성이 있습니다. 제1봉은 장수같이 생겼고, 제2봉은 불상모양, 제3봉은 대호상, 제4봉은 산성같이 보이는데, 제5,6,7봉은 성불사쪽에서 잘 드러납니다.

○ 신선대

청법대 뒤쪽(남쪽방향)능선에 위치한곳이 신선대입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신선이 놀았다는 곳입니다. 유래를 한 번 살펴볼까요?

옛날 한 고승이 청법대에서 불경 외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 건너편 산봉우리에 있는 바위에서 백학이 춤추는 가운데 백발이 성성한 신선들이 앉아 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고승이 황급히 청법대를 내려와 신선을 만나보고자 달려갔으나 그곳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으며, 크게 실망하고 다른 봉우리를 찾기 위해 그 자리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보니 여전히 10여명의 신선들이 담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고승은 그의 눈이 아직도 가까운 곳에서 신선과 대적할 수 없음을 깨닫고 다시 달려갈 마음을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 경업대

여러분 중에 경업대 방향으로 올라 오신분이 계십니까? 신선대 아래에서 범주사 방향으로 하산 길에 위치한 곳입니다. 앞에서 이야기 했듯이 이곳은 임경업장군과 관련이 많은 곳이며, 이 곳에 서서 천황봉~ 신선대를 잇는 능선을 바라보면 경관이 한눈에 보입니다. 눈앞의 장관이 손에 잡힐 듯 가깝기 때문에 느낌이 한결 진하며, 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조선 후기 청나라에 항거하여 싸운 명장 임경업장군이 무예를 닦은 곳입니다. 임경업은 처음에는 충주 달천강변에 있는 대모산을 오르내리며 무예를 닦았는데 지금도 달천강가에는 임경업장군이 세 번에 뛰어올랐다는 삼초대가 있으며, 속리산에 들어온 임경업은 경업대에서 독보대사를 만나 무예를 익혔습니다. 경업대 바로 앞에 5보정도 떨어진 뽕금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를 뛰어넘는 훈련을 하였다고 합니다.

○ 입석대

탐방객 여러분 중에 입석대를 보신분이 있으십니까? 사람이 세운 것 같디구요? 신선대를 지나 비로봉 사이에 위치하며, 입석대는 말그대로 바위가 서 있다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암석들 사이에서 우뚝 서 있는 모습이 신비함을 줍니다. 임경업 장군이 같고 닦은 힘을 시험하여 입석대를 우뚝 세우고 하산 하였다고 합니다 그 크기를 보면 임경업장군이 일으켜 세웠다는 전설이 공연한 이야기로 들리는데, 산꼭대기에 커다란 바위가 혼자 똑바로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누군가 세워놓았다는 생각으로 고개가 쏠리기도 합니다.

○ 배석대

탐방객 여러분 중에 비로봉에서 법주사로 내려가시는 분은 배석대와 학소대를 구경하고 가세요? 배석대는 비로봉에서 법주사 방향으로 하산길에 위치한 상고암 아래쪽에 위치하며 사람이 절을 하고 있는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배석대에는 신라진평왕때의 일화가 전해집니다. 진평왕의 왕비 마야부인이 속리산에 와서 국운의 번창과 왕실의 평온을 기도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덕만공주를 데리고 왔습니다. 덕만공주는 후에 선덕여왕이 된 공주이며, 속리산에 와서 부왕을 뵈수 없게 된 덕만공주는 부왕에게 문안인사를 드릴 자리를 찾다 현재의 배석대 바위를 알게 되었고, 매일 아침 이곳에 올라 진평왕이 계신 경주쪽을 향하여 절을 올렸다고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덕만공주가 절을 할 때 옆에 서 있던 우람한 바위가 넘죽고개를 숙인 후 다시 고개를 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 뒤부터 이 바위를 배석대라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 학소대

학소대는 비로봉에서 법주사 방향으로 하산길에 위치한 상환암 전면에 있는 바위 절벽으로서 옛날 학때가 서식하던 곳입니다. 상환암을 방문한 세조가 은푹 아래에서 목욕하는데, 학소대에 살던 학의 똥이 머리에 떨어졌다합니다. 이에 놀란 주의 사람들이 학소대 아래쪽 바위를 다듬어 차양을 만들었다

고 하는데, 지금도 학소대 아래에는 차양처럼 튀어나온 바위가 그대로 있습니다.

○ 산호대

법주사 금동미륵대불 뒤쪽 수정봉 아래 있으며, 신라 진평왕이 법주사에서 기도를 드릴 때 스님들이 ‘산호만세(山呼萬歲-산처럼 오래 살라는 뜻)’라고 외친 데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바위가 바다의 산호처럼 울긋불긋 한 데다 법주사의 화재를 예방하라는 뜻에서 물과 관련된 ‘산호대’라 고쳐 부르게 되었습니다.

○ 그 외 봉황대가 있다.

<구 봉>

○ 천황봉(天皇峯 1057.7m)

이곳(문장대)에서 볼 때 남쪽 가장 끝에 위치한 삼각형의 봉우리가 천황봉입니다. 천황 어디에서 많이 들어본 말이지 않습니까? 천황봉은 어디에서 온 이름일까요? 우선 천황이라는 말은 불교에서 쓰는 말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나라 나 중국에서 쓰던 말이 아니며, 우리의 토속어도 아닙니다. 단 하나 천황이라는 말은 일본이 군국주의시대를 거치면서 자국의 왕에게 붙인 호칭에만 있을 뿐입니다. 대동여지도를 살펴보면 속리산에 천왕봉이라는 글씨가 쓰여 있고, 구한말에 만들어진 실측지도에도 역시 천왕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구한말에도 천왕봉으로 기록된 것을 보면 천왕봉이 천황봉으로 변한 것은 일제 강점기 때인 것 같습니다. 천왕봉이 천황봉이 되어 있는 것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일입니다. 속리산의 주봉도 하루빨리 제 이름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낙동강, 금강, 한강의 출발점을 알고 계십니까? 천왕봉은 3개의 강이 시작되는 출발점이기도합니다. 빗물이 떨어지는 위치에 따라 동쪽(장각동)으로는 낙동강, 남쪽(대목리)으로는 금강, 북쪽(법주사)으로는 한강의 근원지가 됩니다.

○ 비로봉(973m)

천왕봉 아래쪽에 위치한 봉우리가 보이십니까? 바로 비로봉입니다. 비로(毘廬)란 비로자나불을 줄인 말로서 인도말로 ‘모든 곳을 두루 비친다’란 뜻이며, 광명을 말합니다. 비로봉에 전해지는 유래를 알아보을까요?

진표율사가 속리산 법주사에 온 이튿날 아침 새벽 방안에서 좌선을 하고 있는데 별안간 밝은 빛이 방문 가득히 비쳤습니다. 대사가 깜짝 놀라 방문을 열었더니 맞은편 산봉우리에서 눈부신 햇빛이 오색 무지개를 띠고 사방팔방

으로 비추고 있었고 대사가 황급히 함장배례를 하고 그곳으로 달려가 보니 비로자나불이 암석에 앉아 있다가 서쪽 하늘을 향하여 구름을 타고 떠났다 합니다. 대사는 비로자나불을 직접 배알할 수 있었던 산봉우리를 비로자나불의 이름을 붙여 비로봉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 법주사의 소방관 수정봉(565m)

이제 법주사 금동미륵대불 뒤편에 있는 수정봉에 대해 알아보을까요? 수정봉은 높이가 565m에 지나지 않지만 속리산의 9봉에 드는 산입니다. “수”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세요? 수정봉이라 하는 이유는 법주사를 중심으로 남쪽에는 남산이 있는데 남쪽은 화기가 있는 곳으로 법주사는 모든 건물이 목조로 되어있어 남산의 화기에 의한 화재를 예방하고자 법주사 뒷산을 수성(水性)을 가진 수정으로 산 이름을 지어 남산의 화기를 누르게 했다고 전해지며, 봉우리의 마루에는 머리가 끊긴 흔적이 있는 돌거북이 (속칭 “해태바위”) 있는데, 당태종의 명에 의하여 이어송이 와서 끊었다고 합니다.

<당나라 태종과 거북바위의 유래>

수정봉 정상에는 거대한 거북바위가 자리잡고 있는데, 머리를 서쪽으로 향하고 있는 거북바위는 범상치 않은 모습만큼이나 커다란 전설을 품고 있습니다. 중국 당나라 태종이 어느날 아침에 세수를 하려고 허리를 구부리자 물에 커다란 거북바위가 비쳤으며, 이에 놀란 당태종이 술사에게 물으니 답하기를 “이 거북이 동국에서 중국을 향해 노리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재물과 인물이 모이지 않는다.”고 답하였고 이에 태종은 사람을 시켜 거북을 찾아 없애도록 명했는데, 마침내 속리산 수정봉에서 그 거북을 발견한 당 태종의 신하는 거북의 목을 잘라 골짜기에 버렸으며 거북의 남은 기운을 누르기 위해 등에 10층 석탑까지 세웠다 합니다. 효종때 이 사실을 알게 된 옥천군수 이두양은 각성이라는 스님을 시켜 거북의 머리를 찾아 붙이도록 했고 이에 거북의 머리가 제자리를 찾긴 했으나 목을 이은 흔적은 지울 수가 없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후 이 사실을 안 충청병사 민진익이 충청관찰사 임의백과 상의하여 거북 등에 남아 있던 석탑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 태봉(540m)

속리산에 조선시대의 왕인 순조임금의 태가 묻힌 곳이 있습니다. 알고 계신분 있습니까? 상환암 아래쪽에 태봉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조선 제 23대 순조임금의 태를 넣어둔 곳입니다. 이 태실은 정조 11년(1887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그때 이 산봉우리를 태봉이라고 이름하였고, 보은현을 보은군으로 승격 시켰습니다. 태실비는 순조 13년에 세워진 것인데, 비교적 완전하게 보존되어 있고, 비석 받침인 거북모양의 귀부에 세운 비석에는 ‘주상전하태실’이

라고 음각되어 있습니다. 태항아리는 1927년 일제가 창경궁으로 옮겨가고 현재는 비와 석조물만 남아 있습니다.

○ 삼각형의 바위 봉우리 관음봉(985m)

저쪽(서북쪽)방향의 봉우리가 보이십니까? 어떤 모양일까요? 관음봉은 문장대에서 서북쪽으로 건너다 보이는 삼각형의 바위 봉우리입니다. “관음이란” 관세음보살을 말하는 것으로, 보살은 대자대비하여 중생이 고난중에 열심히 그 이름을 외면 구제하여 준다는 보살이며, 문장대에서 보면 관음봉이 바로 앞이지만 40~50분 가량 소요되는 긴 거리입니다. 관음봉 정상은 거대한 암반으로 이루어져있으며, 관음봉에서 서북쪽으로 내려서서 안부에 달으면 속사치입니다. 옛날 대흥동 주민들이 법주사를 다니던 고개입니다. 관음봉은 비정규등산로 이므로 출입이 통제되어 있습니다.

○ 속리산의 숨은 절경 묘봉 (妙峰, 874m)

관음봉 뒤쪽으로 보이는 봉우리가 묘봉입니다. 속리산의 서북능선 중에 위치해있는 묘봉은 말 그대로 주변 산세가 ‘묘하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며, 인근 지역에서는 묘봉의 봉우리를 멀리에서 바라보면 묘의 봉을 닮았다하여 묘봉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에 계신 탐방객 여러분 중에 묘봉을 오르신 분이 있으십니까? 묘봉을 오르는 길은 법주사, 화북, 신정리등 다양하나 현재는 출입이 통제되어 있습니다. 묘봉의 정상은 874m로 20~30명은 충분히 모여 앉을 수 있는 넓은 바위 광장이 있고 주변경관을 감상하기 더 없이 좋은 장소입니다.

○ 그 외 길상봉, 문수봉, 보현봉등이 있다.

「구봉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묘봉, 관음봉과 함께 속리산 서북능선상에 속하는 상학봉도 속리산의 대표적인 봉우리이다」

<속리산의 서북능선>

속리산의 서북능은 보은군 신정리와 상주군 운흥리를 가르는 활목고개에서 미남봉, 상학봉, 묘봉, 관음봉을 잇는 문장대 서북쪽의 능선으로 공식 등산로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인에게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속리산의 숨은 보배로 꼽히는 곳이다. 이곳은 암릉이 이어져 있고, 기복이 심해서 초보자에게는 산행이 쉽지 않지만 산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매우 인기가 높다.

○ 학과 함께하는 상학봉(上鶴峯, 861m)

묘봉을 넘어 속리산 북서쪽에 숨어 있듯이 자리잡고 있는 상학봉은 이름 그대로 학이 많이 모여들었다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또는 토끼 “상”자를 사용했다고 해서 토끼봉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상학봉은 산 전체가 바위산으로 곳곳에 절벽과 기암들이 많이 있고 속리산 서북능선의 제일 오른쪽에 속하며 오르는 길은 보은군 산외면 신정리 코스와 화북면 운흥리 코스가 있으나 비정규 등산로입니다.

<기타 경관자원>

○ 오송폭포

문장대에서 화북(시어동)방향으로 하산길에 성불사쪽으로 잠시 들어서면 100m에 못 미쳐 왼편 계곡에 오송폭포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오송폭포는 바위가 층층이 쌓인 절벽 사이로 높이 10m정도의 폭포가 5단의 층을 이루며 떨어지며 예전에 폭포 옆으로 ‘오송정’이라는 정자가 있어 오송폭포라 불렸습니다. 천연림과 기이한 암석 사이를 흐르는 이 폭포는 가뭄때에도 물이 마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 장각폭포

천황봉에서 길게 뻗어 내려온 산과 물이 한 용소로 깊숙이 떨어지니 이것이 바로 장각동구의 장각폭포다. 폭포의 높이는 6m가 넘으며 수량이 많아 산천을 진동하고 수십 장 애안아래 검푸른 용소는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으며 낙수의 여파로 빙글빙글 돌고있는 수면을 보고 있으면 금방 용이라도 치솟아 오를 것 같은 느낌을 준다.

폭포 위에는 금란정과 노송이 고색 창연하게 서 있다. 폭포 좌우의 절벽과 단애의 절기는 조화가 무궁하며 조금 밑에 향북정이 있어 산, 폭포, 정자 모두가 잘 조화되어 있다.

○ 추래암

법주사 경내에 있는 바위입니다. 수정봉에서 떨어져 내려왔다하여 추래암이라 하며, 아래에는 열반굴이 있어 굴속 바위벽 오른편에는 아미타불, 왼편에는 약사여래(보물제216호)를 새겼습니다. 바위 위에는 한 그루의 노송과 돌탑이 있고 바위벽에는 나무아미타불이라 새겨져 있는데, 수정봉의 신선이 산봉우리를 정리하다보니 커다란 바위가 있어야할 곳에 있지 않고 제멋대로

자리를 변경하였는지라, 화가 난 신선이 “너는 이 수정봉에서 소용이 없다”고 하며 굴러버려 지금의 자리에 떨어져 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 은폭동

상환암 아래쪽에 위치하고 폭포에 떨어지는 소리만 들리고 그 물의 근원은 보이지 않는다하여 숨어 내려가는 폭포라 했고, 우암 송시열 선생의 명시가 상환암에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넘실넘실 흐르는 물줄기여 어찌하여 돌아가운데서 울리는가 세상 삶들 더러운 발 씻을까보아 몸은 감추고서 소리만 내네”

<문장대에서 보이는 산들>

○백악산(白岳山 858m)

백두대간을 벗어 난 서북쪽 능선을 따라 백악산이 보입니다. 백악산은 백개의 봉우리가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대야산(大耶山, 931m)

백두대간이 다시 북으로 청화산, 조항산을 지나 장성봉 못 미쳐 우뚝 솟아 있는 아름다운 산입니다. 이 산만큼 물이 풍부한 산도 드물어 대하산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장성봉(長城峰, 915.3m)

백두대간의 허리 격에 솟은 산으로, 장성봉은 예전에 수정을 캐던 수정광산으로 알려졌던 산입니다.

○낙영산(落影山, 684m)

말 그대로 그림자가 떨어진 산입니다. 백악산에서 수안재를 지나 북서쪽으로 뻗어 내린 능선의 중간쯤 위치해 있는데, 이 낙영산으로부터 서쪽으로는 조봉산이, 북으로는 도명산이 위치합니다.

○칠보산(778m)

예로부터 불가에서는 금, 은, 산호, 거저(바다조개), 마노(석영), 파리(수정), 진주를 일곱가지 보석으로 쳤다. 괴산군 칠성면과 장연면을 가로지르는 산줄기에는 일곱가지 보석처럼 아름다운 일곱 봉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칠봉산이었다고 하는데 요즘은 칠보산이라 불립니다.

○군자산(君子山, 948m)

속리산국립공원에 편입되어 있으며 괴산군에서 제일 높은 산입니다. 옛날에는 군대산이라 불렀는데, 군대의 터라는 뜻이며, 이 곳 마을 사람들은 비약산, 혹은 비학산이라고도 부릅니다. 군자산이란 이름은 주변에서 제일 높은 산이라는 뜻에서 붙여진 것입니다.

9. 해설을 마무리하며....

자연과의 만남은 바쁜 일상속에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것들을 바라보는 넓은 안목을 만들어 줍니다. 특히 훼손되지 않은 국립공원의 자연은 휴식과 함께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풍요롭게 해주는 좋은 스승이 됩니다. 이런 자연의 휴식처를 지키기 위한 안전수칙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해설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 1) 지정된 탐방로만 이용합니다.
- 2) 탐방후 자기 쓰레기는 되가져 갑니다.
- 3) 화장실 등 시설물은 깨끗이 이용해 주세요.
- 4) 자연사랑, 공원사랑(꽃이나 산나물 채취 등 자연훼손을 하지 맙시다.)
- 5) 계곡을 오염시키지 맙시다
- 6) 산불조심
- 7) 공원내에서는 조용히
- 8) 지정된 장소 밖에서는 취사, 야영을 하지 맙시다.
- 9) 공원탐방은 약속입니다(대피소 이용 및 자연해설사전예약)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방법>

대상자: 어른 5~10명

대상지: 문장대 정상

준비물: 참여자(간편한 옷차림, 등산화)

해설자(쌍안경, 리플렛)

소요시간: 30~40분

대상지 특성: 문장대 정상은 법주사 및 속리산의 8봉 8대를 한눈에 둘러보거나 조망하기에 좋은 장소이며 솔리산 국립공원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다양한 지형경관을 관찰하기에 적합한 장소임. 진행은 해설 소재가 많은 법주사, 수정봉, 청황봉, 문장대등 4개 장소를 주요 해설 장소로 선정함